

# 페루의 잉카문명



민만식  
(외국어대학 정책과학대 학장)



**페루**의 수도 「리마」는 잉카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장군 피사로(Francisco Pizarro)에 의해 1553년에 건설된 곳으로 이후 스페인 왕국의 부왕(副王)이 상주하여 남미식민지 개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여름, 필자가 처음 이 유서깊은 곳을 방문하였을 때 「리마」는 식민지시대의 사적을 많이 보존하고 있었다. 중세의 건축구조를 보이고 있는 성당, 깨끗하게 단장된 주택가의 흰색담, 잘 정돈된 거리의 화단, 시민이 모이는 광장과 공원 등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찾아가본 「리마」에서는 옛적의 아름다운 향수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어떻게 그 아름답던 도시가 이처럼 황폐해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만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오늘날의 페루의 이러한 모습은 경제공황과 정치적 불안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낮에도 농촌 게릴라가 도시까지 진출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필자는 페루의 정치현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지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번 여행이 필자에게 더욱 소중한 것은 역사책이나 지리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유명한 잉카문명의 유적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 새벽, 잉카제국의 고도(古都) 「꾸스꼬」로 가기 위해 「리마」 교외의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필자를 태운 항공기는 6,000 m 이상이나 되는 「살칸티」 산의 만년설을 내려다보며, 잉카제국 유적의 상공을 선회한 뒤 해발 3,400 m의





「꾸스코」에 도착하였다. 2월 초의 한국은 추운 겨울인데 반해 「꾸스코」는 쾌적하고 공기도 맑은 고도의 여름날 저녁을 드러내고 있었다.

「꾸스코」는 전화(戰禍)에 의해 두번, 지진에 의해 두번 등 최소한 4번 이상 파괴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가(市街)에는 잉카제국시대에 구축한 돌벽으로 만든 성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 성곽의 돌과 돌의 이음새는 지금의 시멘트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밀착되어 면도날도 통과시킬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사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과학기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마술사의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이러한 돌벽은 「꾸스코」시내의 관공서, 학교, 주택 등 어느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시의 도로도



당시 잉카제국의 번영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수도인 「꾸스코」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은 왕도(王道)는 한때 완전포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잉카민족은 도로, 수로, 건축에서도 발전하였지만 사회제도와 예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한다. 섬유공업 및 기타 수공업도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잉카제국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알려진 안데스산맥 중앙부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전 「베링」해협을 건너 안데스지역에 정착한 몽고인계를 잉카민족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그때부터 5,500년간 수렵생활을 하였으며, 기원전 2,500년 경에는 농업을 시작하였고, 기원전 1,500년 경에는 토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후 500년이 지나 아마존강의 상류(현재의 페루)에 거대한 신전, 돌로 만든 조각, 황금세공의 문화가 출현하였다. 「차빈」문화라는 이 문화는 안데스지역 일대에 전파된다. 잉카문명은 이 문화를 점령한 북방의 잉카민족의 문화였다.

이처럼 안데스 일대에는 기원전부터 많은 문화가 번영하여 그들의 유적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데스 중앙부의 「차빈」문화, 페루 북해안의 「모치카」문화, 남해안의 「나스카」문화 등이 한때 꽃피었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관광지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잉카제국의 유적 「마추피추」를 향하였다. 「꾸스코」에서 자동차(自動車)로 「우루밤바」강을



따라 110km를 달려 「마추피추」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부터 2km 떨어진 곳에 「마추피추」유적 견학 전용역이 있는 「뿌엔페 루이나」에 이르렀다. 그 주변은 해발 1,700m인 심산유곡의 절경이다. 그곳에서 「우루밤바」강의 흔들다리를 건너 버스를 타고 약 10km를 달려서 해발 500m의 절벽을 돌면 해발 1,200m에서 2,400m의 높고 넓은 지대에 걸쳐있는 잉카제국의 웅장했던 모습이 펼쳐진다. 궁전, 신전, 제단, 요새 등이 있으며 귀족이나 서민층의 거주지, 계단식 밭, 수로의 흔적, 수급장 그리고 250㎡나 되는 넓은 성역(聖域)광장 등이 잉카인들의 옛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지형지세를 이용한 요새도시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또한 기후도 좋고 농사에도 적합하여 한때 잉카제국의 곡창이었다고도 한다.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자신도 모르게 잉카인들이 어제까지도 여기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 신비한 선경에 빨려들었다.

그러나 한가지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유적이 300년간의 스페인 통치기간과 페루가 공화국으로 독립한 후 1세기가 지날때까지도 사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마추피추」의 건설자가 누구였던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지만 당시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던 잉카민족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1911년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인 빙함(Hiram Bingham)이 처음 이곳을 발견한 후 그의 유명한 저서 「잃어버린 잉카의 고도」를 발간하면서 밝혀졌다. 그후 「마추피추」는 유명한 잉카제국의 유적으로 각광을 받아왔다고 관광안내원은 영어와 불어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유적을 남긴 잉카족은 15세기 말 「빠차쿠 맥」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선 「꾸스꼬」시의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여 대규모 건축물 및 태양의 신전을 건설하였다. 시 주변의 계곡사이에는 대규모의 계단식 밭을 가꾸게 하여 잉카족의 지도자, 건축노동자, 군인 등에게 식량을 제공하게 하였다. 그리고 「꾸스꼬」 북동방의 「오안파이팜보」, 「우루밤바」, 「비스깜바」 등을 정복하고, 남쪽의 「아이마라」족을 토벌하였다. 또한 북쪽의 「차메아」족을 토벌하여 「기타마르카」까지 점령하였다. 잉카족은 새로 점령한 토지를 「아이유」라는 공동체를 통해 관할하였고, 원주민의 대부분을 강제로 타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특히 잉카족이 많이 거주했던 곳에서는 반항적인 주민을 강제 추방하여 산업의 발달이나 새로운 토지의 개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부친 밑에서 초인적인 활약을 한 「뚜빠 유빵끼」가 「빠차쿠 맥」을 계승하여 황제로 즉위하자 잉카제국의 판도는 최대로 강력해졌고 제국의 행정도 견고하게 자리잡아 갔다. 「또바」는 오늘의 에쿠아도르의 수도인 「끼토」를 점령하였고, 볼리비아, 칠레까지 침략하여 「마우리」 강변을 잉카제국 최남부지대로 했다. 그후 「꾸스꼬」를 방어하기 위하여 「삭사와만」성을 건설 하였다. 대대적인 국세(國勢) 조사를 통해 토지의 크기, 노동인구, 생산물의 양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분배 및 생산물을 조정하였다. 잉카제국의 영토는 약 90만 평방km에 달했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크기보다 몇 배나 큰 면적이었다.



잉카민족이 어떻게 하여 대정복에 성공하였는가는 아직도 사학자들의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잉카민족은 정복한 지역 주민의 습관을 존중해 주었고, 그들의 지방신을 신봉하게 하여 주는 대신 잉카족의 신인 태양신을 봉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토착민의 추장의 지위도 존중하여 주었다.

잉카제국에는 엄격한 사회신분계층이 있었는데 최고위 계층은 황제이며, 그 측근에는 지방장관으로서 귀족신분의 잉카족이 위치하고 있었다. 잉카황제의 지령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리 역시 잉카족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잉카족의 사회적 지위가 출생신분에 따라 세습되었기 때문인데, 이 제도는 잉카사회의 구조를 확고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고정화하여 제국의 번영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하였다.

잉카족의 통치방법으로서 잉카제국 중앙정부는 토지를 황제용, 태양신용, 서민용으로 삼분하였으며, 수확된 농작물도 역시 삼분하였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거주 및 이주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토지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토지는 성인남자, 성인여자, 아이들의 수에 따라 분배되었으며, 죽으면 토지는 제국에 반납하는 것이 관례였다. 흉작이나 전시에 대비한 제국의 저장소가 「꾸스꼬」 및 주요 도시에 설비되어 있어 스페인 정복자들을 놀라게 해주었다고 한다.

잉카제국의 지배는 신속한 정보입수 방법과 명령전달방법을 필요로 하여 도로 및 숙박역이 설치되었고 전령제도가 있었다. 이처럼 잉카제국은 발달된 통치방법을 기초로 잉카문화를 전파하면서 생활양식, 언어까지 어느정도 통일하는데 성공하였다.

지금도 인디안 사이에는 문화적 공감대가 남아 있으며, 오늘날의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는 「케추아」어나 「아이마라」어를 사용하는 인디안 인구가 거의 700만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꾸스꼬」시에는 잉카제국의 문화적 행사를 기념하여 매년 6월 24일을 「Inti Raymi」로 정해놓고 있다. 이날에는 대축제가 있으며, 태양의 신에 대한 제사가 성대히 이루어진다. 잉카제국의 관습에 의해 그해에 수확한 「옥수수」, 「치차주」를 잉카황제가 신하들에게 건네주고, 「야마」(산양의 일종)를 제물로 희생시켜,



그 죽은 양의 심장을 태양의 신에 바친다고 한다. 이 축제의식은 식민시대는 물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이러한 전통적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보존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의 의상과, 노래, 춤 등에 인디안들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들의 과거 500년간의 영광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유럽문화에서 탈피하여 인디안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완전히 유럽의 문화를 탈피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의 건축물, 노래, 춤 등에서 스페인 문화와 인디안 문화가 많이 혼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아직도 탈피 못한 것은 빈곤과,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는 스페인계의 권력 및 경제의 독점으로서 이는 그들 문화의 부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 잉카문명의 주인공들과 동아시아인들과의 유사성이다. 잉카인들이 걸치는 판초는 몽고 유목인들의 그것과 유사하며, 대나무로 만든 그들의 「케냐」라는 악기는 한국의 통소와 유사하다. 특히 이러한 악기는 그들과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어대학 중남미연구소가 발간한 논문집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토속어인 「케추아」어와 알타이어 사이에는 많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그들의 피부색, 골격 등이 동아시아 인종과 비슷하며, 특히 몽고반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비한 기원을 밝히는 흥미로운 증거가 되고 있다. ☉